

스마트관광 전문연구기관



STRC
KYUNG HEE UNIVERSITY

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보도자료

기관	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	이메일	nhchung@khu.ac.kr
문의	정남호 소장	연락처	02-961-2353
배포일	2022년 8월 10일	매 수	총 5쪽

제주도-순천시, 스마트관광도시 1위 수성...송파구는 첫 정상 경희대-컨슈머인사이트, '스마트관광 성숙도' 우수 지자체 분석

여행자원-스마트 인프라 겸비한 전통강자 입지 견재
수영구, 담양군, 순창군 등 기초지자체 약진 두드러져

○ 올해로 두번째인 '전국 지자체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평가'에서 광역지자체 부문은 제주도가, 광역도-기초지자체 부문은 전남 순천시가 2연패를 차지했다. 광역시-기초지자체 부문의 서울 송파구는 작년 2위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다. 이들 최상위권 강자의 입지가 확고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부산 수영구, 전남 담양군, 전북 순창군 등 신흥 강자들이 약진하며 상위권 진출에 성공했다.

○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와 데이터융복합·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지난 5월 각 지자체 여행자와 현지인(연고자 포함) 총 5만2000여명에게 각 지역을 5개 영역(△매력성 △지속가능성 △디지털화 △협력적 파트너십 △접근가능성)에서 평가토록 하고 이를 종합해 '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(ST-CMI ; Smart Tourism Cities Maturity Index)'를 집계했다.

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· 컨슈머인사이트 공동 기획
2022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
 - 광역지자체 부문 -

순위	광역명	점수(1,000점 만점)	작년대비	
			점수	순위
1	제주특별자치도	629	-1	-
2	전라북도	611	+8	▲3
3	부산광역시	609	+7	▲1
4	전라남도	607	+3	▽1
5	광주광역시	606	-6	▽3
6	강원도	605	+4	▽1
7	대구광역시	603	+2	▽2
-	서울특별시	603	+4	▲2
-	울산광역시	603	+2	▲1
전국 평균		595	+5	
10	경상남도	589	+3	▲1
11	대전광역시	586	-2	▽1
12	경기도	584	+4	-
-	인천광역시	584	+6	▲1
14	충청남도	581	+5	-
-	경상북도	581	+7	▲1
16	충청북도	571	+5	-

Q. '000'은/는 각 측면에서 어땠습니까? (5점 척도, 전혀 그렇지 않다 (1) ↔ (5) 매우 그렇다)
 주1) 성숙도 평가 점수는 전국 여행자와 현지인(연고자)를 대상으로 5개 차원 (매력성, 접근성, 디지털 준비도, 지속 가능성, 협력적 파트너십)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임
 주2) 사례수는 여행자 24,960명, 현지인(연고자) 27,299명임
 주3)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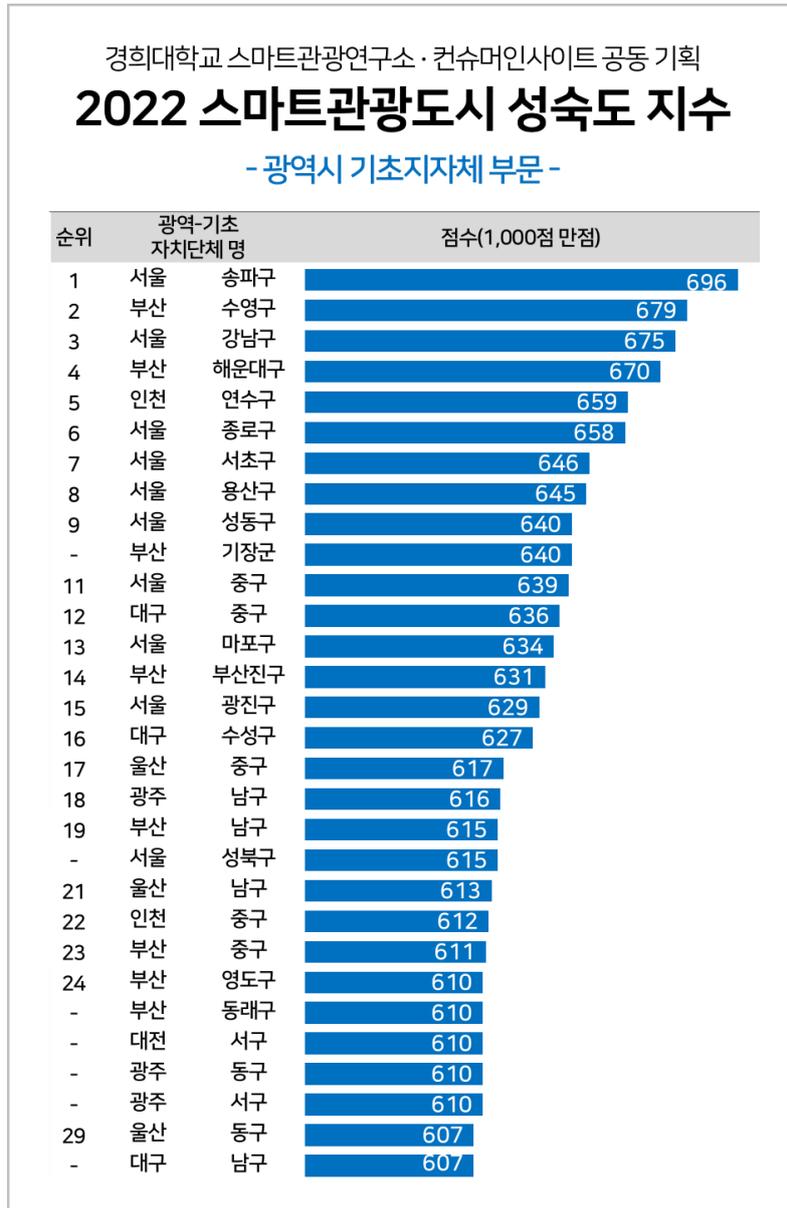
■ 광역지자체 부문

○ 제주특별자치도는 629점(1000점 만점)으로 16개 광역지자체(세종특별자치시 제외)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. 전라북도(611점)와 부산광역시(609점)는 새로이 2, 3위에 진입했고 그 뒤로는 전라남도(607점), 광주광역시(606점), 강원도(605점) 순이었다. 대구광역시, 서울특별시, 울산광역시(각각 603점)는 전국평균(595점)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.

□ 제주도는 올해도 20점 안팎의 차이로 2위그룹을 크게 앞섰다. 국내정상급의 인기 관광지인 동시에 관광콘텐츠와 디지털 인프라가 융합된 '스마트 관광 성숙도'에서도 절대 강자임을 과시했다.

□ 전북은 작년보다 3계단 상승하며 2위에, 부산은 1계단 상승하며 3위에 올랐다. 전년도 2, 3위였던 광주, 전남은 5위, 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.

□ 제주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인 강원도는 매력성 영역에서는 제주에 이어 2위였지만 접근성과 디지털화에서 10위 아래로 떨어져 종합순위는 중상위권에 그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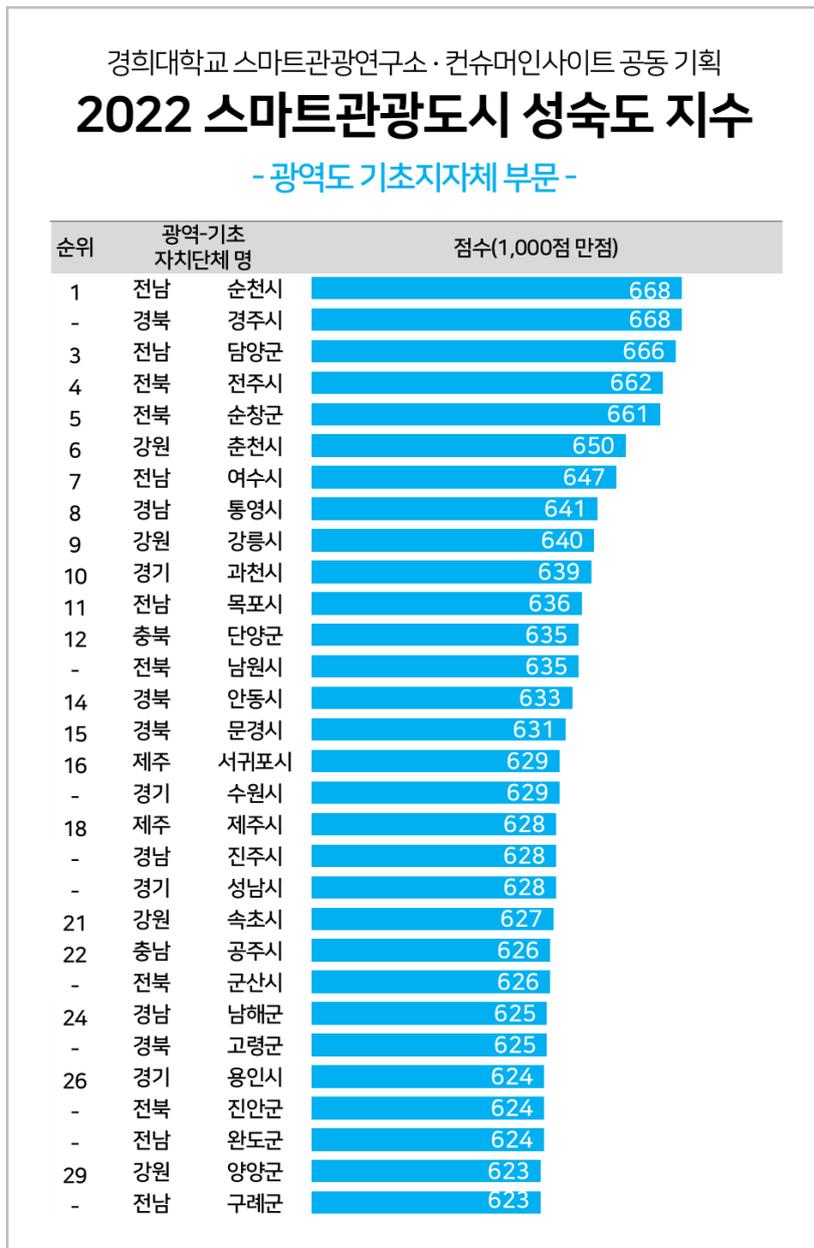


■ 광역시-기초지자체 부문

○ 기초지자체는 광역시와 광역도별 특성을 감안해 광역시-기초지자체(74개 구·군)와 광역도-기초지자체(155개 시·군) 부문으로 구분해 비교했다.

○ 광역시-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송파구(696점)가 1위를 차지했고 부산 수영구(679점)가 2위, 서울 강남구(675점)가 3위였다. 송파구는 작년 강남구에 이어 2위였으나 올해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위가 됐다. 부산 수영구 역시 6계단 상승하며 2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.

○ 서울과 부산 지역 쏠림현상도 두드러졌다. 30위권에 서울이 10곳, 부산이 8곳으로 이들 두 지역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. 그밖에는 대구 광주 울산이 각 3곳, 인천이 2곳, 대전이 1곳이었다.



Q. '000'은/는 각 측면에서 어땠습니까? (5점 척도, 전혀 그렇지 않다 (1) ↔ (5) 매우 그렇다)
 주1) 성숙도 평가 점수는 전국 여행자와 현지인(연고자)를 대상으로 5개 차원 (매력성, 접근성, 디지털 준비도, 지속 가능성, 협력적 파트너십)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임
 주2) 사례수는 여행자 24,960명, 현지인(연고자) 27,299명임
 주3)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

■ 광역도-기초지자체 부문

○ 광역도-기초지자체 중에는 전남 순천시와 경북 경주시가 작년 각각 1, 2위에 이어 올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. 여행자원이 풍부한 유명 관광지면서 디지털 인프라에도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.

○ 전남 담양군(666점)은 작년보다 10계단 상승하면서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른 반면 전북 전주시(662점)는 4위로 한 계단 내려 앉았다. 그 다음인 전북 순창군(661점)과 강원 춘천시(650점)는 모두 평가점수와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.

○ 상위 30위 중 전남과 강원 지역이 각각 6곳, 전북 5곳으로 호남지역 강세가 두드러졌다. 그 뒤로 경북이 4곳, 경남과 경기 지역이 각각 3곳이었다.

■ 순위 변동 및 특징 분석

○ 광역지자체는 순위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상하위권 격차는 줄어들었다. 기초지자체의 경우 최상위권보다는 10~30위권에서 활발한 순위변동이 나타났다. 특히 서울 성북구와 경북 고령군의 상승이 눈에 띈다.

○ 광역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러 기초지자체 점수를 합산, 종합해 산출하는 특성 상 급격한 상승, 하락이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. 반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스마트관광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따라 단기간에 경쟁력 강화가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.

○ 정남호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장은 "사회 모든 부문에 불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바람은 여행관광 분야도 피해 갈 수 없다"고 전제하고 "스마트관광도시 인프라가 각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"고 강조했다.

본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의 '2022년 지자체별 관광/여가산업 역량 평가 조사'를 기초로 했다. 컨슈머인사이트의 82만 IBP(Invitation Based Panel)를 표본틀로 여행객 2만4960명, 현지인(연고자) 2만7299명 총 5만2259명을 조사했으며, 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여행객과 현지인을 비비례 할당해 가급적 기초지자체 당 표본이 60사례를 넘도록 설계했다. 자료는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해 2022년 5월 2일~5월 26일까지(총 25일) 수집했다.